

세계화와 국제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새로운 문제들

김승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범위가 세계적(global)이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연결된다.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도 특정 국가에 살고 있는 개인이나 개별 조직체의 커뮤니케이션 현상도 포함한다. 그리고 기존의 국제커뮤니케이션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매스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간적으로 국가의 경계선을 가로질러 정보를 전달하는 현상은 오늘날의 현상만은 아니다. 고대 로마제국은 우편제도를 상용화했고, 15세기 인쇄술의 발달은 책과 팜플렛 등을 자기지역을 넘어서 유포했다. 유럽의 식민지 확산과 함께 이런 정보전달 방식은 유럽과 기타 식민지역을 연결했다. 또 1870년대 초에 이미 해저케이블 전신망은 전세계를 공간화하고 있었다. 20세기 미디어의 발달은 급속도로 시간을 단축하여 공간을 압축하면서 세계를 하나의 작은 마을로 공간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미디어를 통해본 세계화의 모습이다.

학문의 역사로 볼 때 언론학은 오래된 학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언론학 중에서도 하나의 연구분야로 정착한 지가 오래되지 않

있다는 의미에서 비교적 신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현상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국제커뮤니케이션 현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라디오의 선전효과연구 등은 국제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루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국가라는 경계 안에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즉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자연스럽게 초국가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언론학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국가 경계선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따라서 초국가적인 커뮤니케이션 특징은 자연스럽게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장거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세계적인 특징을 점차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과 세계화 현상을 연결시키는 국제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세계화는 근대화가 심화된 최근의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화를 지리상의 발견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현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란 속에 있다. 세계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오래된 현상임에 틀림없지만 그 자체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포스트모던 입장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생겨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문제들을 새로운 연구문제로 완전히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근대적 틀 속에서 진행된 신국제정보질서 운동과 정보 불균형에 관한 연구문제는 세계화의 시대에도 역시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된 채로 남는가? 퍼즐로서 연구문제의 존재는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생성 소멸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 논문은 최근 세계화 담론과 새로운 국제커뮤니케이션 현상이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새로운 문제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문제들의 윤곽과 연구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2. 기존의 문제들과 연구문제

세계화의 과정과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20세기의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기존의 틀에서 다루었던 문제와는 모습을 달리할 것이다. 20세기말부터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점차 네트워크사회의 모습을 띄면서 새로운 장거리 미디어가 새로운 정보 전달 양식을 구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언론학에서 하나의 독립된 분야이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국제적 차원에 대한 연구로서 자리잡았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소위 전통적 연구와 맑시스트 비판 연구로 대별된다. 전통적 연구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독립된 분야로서 이론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2차 대전이후 국가발전이론과 연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발전 언론학’(developmental journalism)이다. 2차 대전이후 경제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3세계 국가들은 서구세계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필요를 느꼈고, 새로운 기술 도입과 함께 새로운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도입도 동시에 필요했다. 이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과 가치관을 후진지역에 전파하는 것이었다.

전통적 연구에서 진행된 국제적 차원에 대한 연구를 전통적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할로란(Halloran, 1981, 1997)이 국제적인 비교 연구는 전통적 연구의 몇 가지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기존의 연구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전통적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문제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다원적 입장(혹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입장)에 근거한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 발전은 일직선상의 발달 경로를 따라 나아간다. 둘째, 서구 국가는 일직선상의 발전 경로 앞에 서 있으며, 후진국가들은 그 뒤를 따라와야 한다. 셋째, 후진국의 저개발 원인은 저개발 국가들의 내부문제이다.

비판적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기본 틀은 맑스의 식민주의와 레닌의 제

국주의론 그리고 남미를 중심으로 진행된 종속이론 등이다. 이 이론은 전통적 발전언론의 기본가정을 비판하고 있다. 즉 서구국가들은 저발전의 역사적 경험이 없었으며, 저개발의 원인이 내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계급적 시각을 국제사회에 적용시킨 이론들을 수용하고 있는 비판적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제국주의 세계지배 현상,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정보 불균형, 미디어의 세계체제 유지적 이데올로기 기능 등을 분석하고, 불균형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신국제정보질서 운동을 주요 연구문제로 삼고 있다.(김승현, 1991)

<표1> 전통연구와 비판연구의 비교

전통적 국제컴	연구비판적 국제컴 연구
1. 미디어와 국가발전: 정보 전파	1. 세계차원의 미디어 소유집중
2. 미디어 제도 국가간 비교	2. 미디어 종속과 문화종속
3. 국가간 뉴스흐름과 그 결정요인	3. 국가간 정보 불균형 흐름
4. 통신사중심의 게이트키퍼 연구	4. 미디어 다국적기업과 미디어 제국주의
5. 뉴 미디어 발달과 효율적 정보전달	5. 신국제정보질서 운동
6. 외국 미디어물의 수용과 효과	6. 미디어 텍스트의 이데올로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1920년대 매스컴 연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먼저 1차 대전이후 리프만(Lippman, 1922)과 라스웰(Lasswell, 1926)이 수행한 전시 선전 연구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스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으며, 이후 전통 연구의 기본 원리를 제공했다. 2차대전 후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담론을 구성한다.(Boyd-Barrett, 1997; 황상재, 1997) 이 담론은 자유 시장을 주장하면서 매체 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어디에서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했다.(Nordenstreng, 1995) 대부분 세계의 매체 자원과 매체 자본이 선진국에 집중되었으므로 여기서 혜택을 받는 자들은 선진국의 매체 소유자, 정부, 기업가들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흐름'이란 개념은 정치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했

다고 할 수 있다.

로저스(Rogers, 1962), 러너(Lerner, 1964), 슈람(Schramm, 1964)이 대표하는 근대화 이론은 근대화 또는 발전문제가 매스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지에 대한 연구였다.(김승현, 1997) 그 외에 실증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호스킨스 등은 가격 차등화, 문화적 할인 등을 논증하면서 국제 프로그램 시장에서 미국의 텔레비전 지배를 정당화했고(Hoskins & Mirus, 1988), 게이 트키퍼 연구 및 비교언론제도 연구, 국가간 정보유통에 관한 연구(Kayser, 1953; Schramm, 1964; Galtung, 1965; Hester, 1976)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런 연구 전통은 뉴미디어의 세계정보화 과정연구(Frieden, 1996)로 이어진다.

비판적인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주로 2차대전 이후 상업적 세력이 국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식민지를 경험했던 독립 국가가 국제 미디어 세력과 국제 사회의 위계질서에서 우위를 점한 국가들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비판적인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는 해방이후 형식적인 정치적 자유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디어의 독점화와 집중화를 비판한다. 국제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유엔과 유네스코를 기초로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비동맹운동(NAM)을 결성했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항할 커뮤니케이션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문화제국주의', '미디어제국주의', '신국제정보질서운동(NWICO)' 같은 개념이 등장했다.

정보유통구조의 불균형, 정보종속과 문화종속(Schiller, 1976, 1996; Nordenstreng, 1995), 전세계 미디어의 소유 집중(Schiller, 1976), 국가간 정보의 불균형 흐름(Galtung, 1971), 텍스트의 이데올로기 문제(Mattelart & Dorfman, 1984), 다국적 기업의 역할, 그리고 신세계정보질서(NWICO)의 의미와 역할(Galtung & Vincent, 1992; Roach, 1997), 그리고 신세계정보질서에서 뉴스의 흐름과 제3세계의 커뮤니케이션권(Hamelink, 1997)을 연구했다. 신국제정보질서 운동과 함께 연결된 연구는 제3세계 통신사의 가능성 및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연구

(Samarajiva, 1984)가 있다. 그 외에 제3세계 TV장르의 역수출 가능성과 역문화 제국주의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Oliviera, 1993; McAnany, 1994; 조항제, 1997)

비판적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내부적 긴장을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문화연구는 문학과 인문학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미디어 텍스트가 세계적으로 대중을 포섭하는지, 국제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문화연구는 세계적인 미디어 텍스트가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역의 소비와 해외 소비를 위해 생산된 텍스트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연구했다.(Boyd-Barrett, 1997) 문화연구의 영향을 받아 문화제국주의의 가정을 비판하는 연구는 ‘능동적 수용자’ 담론을 제시하게 되었고, 중심부 문화가 주변부 문화에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의문시하는 결과를 낳았다.(Ang, 1985; Liebes & Katz, 1986) ‘능동적 수용자’ 담론을 중심으로 중심부 문화에 대한 수용자의 저항과 즐거움이라는 개념(Ang, 1996)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편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복잡한 경제적 결정, 기술, 텔레비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정책변화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McGuigan, 1992) 이러한 점에서 문화연구가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미친 영향은 수용자에 대한 단일한 가정을 유연하게 했으며, 이 영역을 다학문적인 논의의 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 문화연구는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문화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와 연계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기존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서 비판적 담론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들 속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는 국민국가를 고정된 단위로 설정하고,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중심과 주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복잡하고 다중심적이며 이질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어렵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오랜 역사가 남긴 문제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현 단계의 세계화는 새로운 문제들을 모색하도록 개인의 일상적 삶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지리정치를 변화시켰다. 또한 세계

화는 국민국가의 틀내에 포함될 수 없는 차원들을 언급해야만 설명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낳고 있다고 본다.

3. 세계화와 국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들

세계화 시대의 강화된 세계의식과 상호연계성의 증대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토대를 형성하는 세계경제는 갈수록 ‘불확실성의 시대’를 실감케 한다.(Amin, 1997) 세계화의 시대는 국제커뮤니케이션분야의 연구 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을 어떤 틀로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점점 어려워진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틀 짓기는 과거의 연구문제에 대한 현재적 점검과 현재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들에서 연구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따라서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세계화 시대에 근대적 틀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문제들과 새로운 문제들을 함께 점검해야한다.

‘세계화’란 개념은 많은 학문과 담론들이 만나는 지점에 있으며, 서구화, 정보화, 아메리카화, 포스트모더니티, 자본주의 등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담론은 다양한 시각과 연결되어 각각 세계화 현상에 대해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그렇다면,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세계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존의 틀에 입각하여 근대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며, 탈근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화 현상을 근대적인 틀로 볼 때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부터 몇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근대적 시각에서 세계화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입장은 세계화 현상의 중심에 자본주의가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세계화는 근대성의 심화라고 주장한다. 사실 세계화는 끊임없이 제3세계를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시키고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주요 주창국가인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을 내세워 초국적 기업의 금융 자본(financial capital)이 제3세계 지

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초국적 기업은 대부분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자본도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탈규제와 민영화 원리가 제3세계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용되기도는 초국적 기업의 진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있다.

둘째, 국제커뮤니케이션의 정보불균형의 심화와 정보흐름의 일방적 성격은 1960-70년대와 비교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컴퓨터와 연결된 정보의 세계지배는 더욱 심화되고있는 실정이다. 즉 세계화 과정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Lash and Urry, 1994) 이로 인해 중심과 주변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은 중심의 정보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초고속도로 전략 또한 정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유용하며, 세계적인 정보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주로 미국에 본부를 둔 몇몇 초국적 기업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세계적인 새로운 소비계층의 형성으로 국가간의 위계질서는 물론 집단간의 위계질서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표 2> 세계화 시대의 국제커뮤니케이션 과제

근대적 틀의 연속	탈근대적 틀
1.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의 새로운 방향	1. 국가의 소멸론과 NGO의 역할
2. 뉴 미디어(DBS/정보고속도로)의 구조 및 영향도덕성 강조	2. 정보빈자와 부자의 동시공존
3. 초국적 미디어기업의 세계지배와 주변 지역의 미디어	3. 지역과 집단의 문화정체성 및 연대 생존 전략문제: 후기-식민주의
4. 각 국가의 문화정체성 연구	4.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공간의 재구조화 문제
5. 게이트키퍼링 창구의 다원화	5. 탈근대적 수용자문제

셋째, 세계화 과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서양 중심적인 현실을 제3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초국적 기업의 소비문화는 지역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적 동질화 현상을 낳고 있다.(Hamelink,

1994) 미국의 문화상품 유입에 대한 미국과 유럽간의 갈등에서도 나타났지만, 각 국가는 중심부의 문화적 위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문화의 자율성에 대한 세계적으로 우려하고있다.

넷째, 과거 장기간의 제국주의의 역사가 여전히 정치경제적 관계를 세계적으로 지속시키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강요된 문화는 현재의 문화간 불평등 문제에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현상과 해석들이 강하게 기존의 근대적 틀을 고집하고 있지만, 기존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변칙들이 등장하고 있고, 적어도 기존에 제기되던 중요한 문제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런 정서 구조 뒤에는 탈근대적 이론들이 위치하고 있다. 탈근대적 이론들은 과거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바탕이 된 근대주의와 근대성의 기본가정에 회의를 던진다. 포스트모던 철학이론은 진리의 문제가 가치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지식이 절대적인 거대한 진리로서 사람들을 얽어매던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 그런 지식들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가치로 전락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Vattimo, 1988) 사실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특히 연구자의 집단적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이다. 제3세계학자들이 신국제정보질서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탈근대적 사고나 후기구조주의는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탈근대 철학은 근대의 전통적인 형이상학 체계가 만고불변의 진리 체계가 아니라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려 한다. 또 근대적 철학에 근거한 진실과 허위, 본질과 외양,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을 나누는 구분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이란 다만 권력에의 의지에서 오는 산물이거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은 '해석'일 뿐이며, 해석은 주관적 가치에 의존하며, 따라서 우리가 아는 세계란 주관적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 역시 국제커뮤니

케이션에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와 국제현실인식에 있어서 지식과 허위의 이분법적 구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서구사회에서 역사에 대한 중요한 개념인 발전 개념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발전의 개념이 '세속화'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속화라는 의미는 발전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발전은 이제 근대시기 초기에 설정했던 목적론적 종착지를 향해 가는 것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새로운 것을 발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Vattimo, 1988) 사실 발전, 진보, 유토피아 등은 시간의 개념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전에 대한 탈근대적 입장은 발전의 개념을 해체하면서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게 되고 그 반작용으로 시간보다는 공간의 개념이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세계화도 공간개념으로 회귀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시간에 따른 발전 및 그것의 모델 구성 작업보다는 중심의 공간 지배와 주변의 지역투쟁과 해방의 문제 등으로 나아갈 것이다.(Morley and Robins, 1995; Thompson, 1995; Mosco, 1996)

제3세계가 추구해왔던 미디어를 통한 해방문제도 탈근대 사고에서 새롭게 구성된다. 세계화 시대의 지구사회를 탈근대적 사고틀로 바라볼 때, 주변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해방 가능성의 사회로 비추어 진다는 것이다. 비판 미디어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입장을 따르는 미디어 연구자들은 앞으로의 발달된 미디어를 조지 오웰식의 시민 통제 기구나 문화 동질화 도구로 파악하며, 정치경제학적 입장도 세계 초국가적 미디어산업이 전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탈근대적 입장은 근대의 단단한 것이 공기가 되어 사라지는 상황을 주도해 가는 것이 매스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즉 미디어는 거대이론을 해체하는 선봉이 되며, 미디어가 세계의 다양성을 표출하면서 그 자체가 해방의 징표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탈근대 사회는 단선적 역사발전이 종말을 고하고, 계몽사상 자체가 의심을 받고, 유럽 중심 사상이 붕괴되는 상황을 말하며,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라고 한다. 바티모는 자본의 집중과 독점에
도 불구하고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은 다양한 세계관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
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확산 때문에 우리가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그리 큰
손해는 아니며, 오히려 그런 방향감각의 상실 속에서 해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 방향감각의 상실은 동시에 차이나 주변적인 요소나 보통 방언이라고
불리던 것들의 자유를 뜻한다. 즉 어떤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일직선적인
발전관이며, 방향상실은 여러 방향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변적인 요소
와 차이에 대한 사고의 변화로서 자유를 의미한다.(Vattimo, 1992)

물론 이런 주장은 당장 정치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
도에 하나의 방송이 존재할 경우와 위성을 통해서 수십 개의 채널이 들어 올
경우 어느 상황이 더 해방적인가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탈근대
적 사고는 정치적으로 다원주의 입장이며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리고 그들이 해방의 목표로 삼는 것에는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 소수인종집단, 동성애 등등의 다양한 계층의 해방을 꾀하
고 있다. 이런 사고는 국내적으로 운동 목표 설정에서 우선 순위를 바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세계적 노동자연합을 설명하는 종래의 레닌식의 제
국주의론이나 생산양식이론의 틀에 변화를 준다. 이런 변화가 국제커뮤니케
이션 연구에 있어서 계급 문제보다는 문화단위의 인종문제, 지역문제로 나아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탈근대적 사고 자체나 이런 사고와
국제커뮤니케이션분야의 연결이 비판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위
에 제시한 탈근대적 사고는 차이와 기존 인식 및 지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주며, 서구와 제3세계를 둘러싼 많은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던져
주고 있다. 아무튼 탈근대적 사고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새로운 생각거
리를 던져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기본 틀 위에서 세계화에 따른 세부적 연구주제들을 살펴본다. 우선
근대적 전통에서 연구 되어온 신국제정보질서 운동, 뉴미디어의 구조 및 영향,

초국가적 미디어 기업의 세계지배와 주변 지역 미디어의 생존전략, 각 국가의 문화정체성 문제, 게이트키퍼 창구의 다원화 등의 문제는 그대로 지속되거나, 세계화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신국제정보질서와 운동에 관한 연구는 세계화, 개방화, 탈규제의 세계적 논리 속에 연구 문제로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제3세계는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이론적, 정신적인 지지를 상실한 것이 사실이며, 신국제정보질서 운동이 이제 작별을 고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Media, Culture & Society, July, 1990) 어쩌면 제3세계의 신국제질서운동은 이제 구질서운동이며,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위성 커뮤니케이션 망 구축이 새로운 정보질서로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제3세계가 주장하던 국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 시기에 맞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불균형 심화와 종래의 규범적인 구호를 각색한 정도일 뿐이다.(Vincent, 1997) 신국제정보질서운동과 연결된 새로운 연구 방향은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의 활동과 관련된 세계정보불균형 문제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제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에서 NGOs의 손으로 넘어 가야한다는 것이다.(Harris, 1997; Vincent, 1997) 신국제정보질서운동에서 신세계정보질서운동의 변화를 주장했던 구호가 이제 국가의 소멸을 예고는 시기에 민간운동차원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근대적 틀의 게이트키퍼 문제는 다중심화 현상과 초국적 기업의 지역 마케팅과 지역화 전략으로 인해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주요 문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통신사가 유일한 외국 뉴스의 창구이던 시대로부터 창구의 다변화 시대는 자연스럽게 게이트키퍼 문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구간의 게이트키퍼 기능의 차이와 갈등 등이 연구문제로 등장하며, 이제는 수용자 스스로가 게이트 키퍼가 되어야하는 상황증가 현상 자체가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발전모델에 따른 주변부의 발전을 모색하던 기존의 전파이론도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간의 만남의 방식에 대한 연구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근대화를 세계 발전의 과정이자 목표로 삼았던 1950-60년대의 상황이 이제는 전세계의 네트워크화, 다중심화로 바뀌고 있으며, 중심국가의 정보화사회 모델을 주변지역에 수용·확산하는 모델도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발달과 초국가적 미디어 기업의 세계지배와 이에 대응하는 생존전략 문제는 지속되는 중요 연구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세계화와 탈근대간의 관계에 관한 세부연구 문제이다. 탈근대적 틀에서 세계화 현상은 미디어의 시·공 압축으로 세계 의식과 상호연계성이 증대되었으며, 지리-정치적(geo-political)으로는 물론 경제적·문화적 다중심 체제를 낳았다. 서구 세계는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여 계속 확대되는 공간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주변지역들은 공간보다는 장소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을 중요시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중심-주변의 구분을 벗어난 새로운 틀로써 세계화를 탈중심화 과정으로 인식하길 요구하며, 경험의 새로운 차원과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있다.

새로 재구성되는 세계 질서는 현상적으로 기존의 불균형과 동질화를 지속시키고 있지만, 근대적 시각이 기초한 역사 발전, 즉 진보의 담론이 기초한 유럽중심적 시각과 과학, 기술 제일주의를 의문시하게 되었다. 그 동안 근대의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유럽인을 제외한 다수의 불행이 지구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진보와 과학의 원리보다는 지구 전체에 걸친 문제를 해결할 규범을 요구하며, 세계적 현상들을 설명하기보다는 해석하기를 요구한다.(Robertson, 1992) 문화적 동질화 현상과 초국적 기업의 상품이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뛰어넘어 지역을 세계화하고 세계적인 것을 지역화하는 수준과 양상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각 수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들을 해석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간의 상호작용을 일면적으로보다는 다면적으로, 또 변증법적으로 고찰해야 한다.(Tomlinson, 1997) 이런 맥락에서 근대적 연구전통을 탈근대적 상황과 접목시켜서 연구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이다. 이들은 식민주의 시대의 문화종속이 이 시대의 조건으로 계속 상존한다고

보고 포스트 - 식민지성을 지역별로 사례 연구한다. 즉 레닌이 주장하던 형식적 제국주의(formal imperialism) 시대는 끝났지만 제국주의 문화는 새로운 시대에도 계속되고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를 식민지 입장에서 바라보던 문화종속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화와 정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 다중심적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와 구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사고를 수용하고 있다.(Ahmad, 1995)

미디어는 세계 - 지역화(glocalization)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Robertson, 1992), 이것과 반대되는 역할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그 동안 강조되어온 혜택 뿐 아니라 불균형의 심화를 낳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혜택과 불균형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 가능성이 모순적으로 결합되었다. 즉 미디어의 역할은 세계화의 매개자이자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원천으로서 모순적이다.(Tehrani, 1997) 따라서 앞으로의 미디어가 세계지배의 도구로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도 연구되겠지만, 미디어를 통하여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지역 투쟁은 어떤 모습을 띠 것인가도 역시 탈근대사회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주제로 등장한다.

세계화 과정의 지리 - 정치적 변화는 기존의 정치체제나 질서 속에서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문제들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현상들이다. 지리정치적 변화에 의해 새로 탄생한 집단들의 자결과 정체성 주장에 관련된 문제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민족이나 집단들의 인권문제도 주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흐름들의 접합을 통해 생겨나는 복잡한 관계는 아파두라이(Appadurai, 1990)가 지적한 민족적 양상(ethnoscape), 미디어양상(mediascape), 기술양상(technoscape), 금융양상(finanscape), 이데올로기양상(ideoscape)으로 묘사한 다섯 가지 양상의 흐름들 외에도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나 국가간의 상위 정치체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정치체제가 부재한 가운데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현실원리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정보화 활동은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빈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며,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우선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우선, 이들 문제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규범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세계 공통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든 문제의 상위 문제로 삼기를 요구한다. 즉 세계적인 인권의 문제와 불평등은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이는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정보부자(information-rich)들의 회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화를 촉진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도덕성도 마련하지 못하며, 인류 공통의 문제로 국제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Hamelink, 1997)

탈근대적 시각에서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뜯어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불균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존의 틀로써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인류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과 기본적인 인권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때만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현실적인 연구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동의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와 매체의 확대를 동일시하는 태도는 극복해야 하며, 기존의 매체 중심적인 분석이 매체의 역할을 과장하고, 매체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의 영향력을 소홀히 했던 점을 자각해야 한다.

4.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 과제

세계화의 시대의 한가지 특징은 전세계가 네트워크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전세계적 네트워크 사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세계화는 특정 국가의 고립이나 분리를 불가능하게 하며, 이제 세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특정 국가를 분리시켜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원거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사회로 만들면서 종래의 국제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세계 커뮤니케이션 망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세계화는 동시에 지역화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이런 현상에 대한 연구문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고찰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문제는 이제 세계적 차원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인 조명이 필요하며, 언론학을 포함하여 여러 학문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세계 상황에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주요 문제로 제시한다.

1) 세계화 시대에 중심국가의 문화산업의 정책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국가적 문화기업의 세계지배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하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 문화산업의 생존전략이 연구되어야 한다. 정보화사회 및 세계화의 밑바탕에 자본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면, 세계화는 제국주의의 또 다른 가면이며, 신화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세계확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다른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탈근대 사상이라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인 철학 속에서도 근대적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조건이라면 중심지역의 세계 커뮤니케이션 지배 전략은 산업적 측면과 중

심국의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 다음 한국 문화산업의 현상분석과 생존전략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세계체제 내에서 한국의 입장에 반주변부나 아-제국주의로 설정할 경우, 중심지역과 한국과의 관계 및 주변지역과 한국과의 미디어 산업 관계를 세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성해 가는 미디어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던 송신자연구도 새로운 시각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사를 통한 뉴스의 유통이 전세계적 정보유통의 대부분이었던 시대로부터 다양한 세계적 정보 유통기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세계적인 유통과 통신사의 연구로부터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세계적인 정보유통을 지나서 컴퓨터와 위성방송을 통한 세계적인 정보 유통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송신자들의 현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Boyd-Barrett and Rantanen, 1998)

2) 탈규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방송개방이 가져올 산업적 문제들에 관한 연구 및 위성방송 내용과 위성방송 광고의 수용 실태 및 장기적 효과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원론적으로 제시하던 위성방송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방송이 정보와 융합되는 현상,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적 측면과 함께 위성방송 및 위성 통신을 이용한 각 국가의 국가홍보정책과 그 영향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3) 최근 세계화 과정에서 점차 부각되고 중요시되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대두 및 문화적 지역화를 한국입장에서는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한국의 지역화를 이끌어 가는데 중심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자본은 공간을 통제하고 노동은 장소에서 저항한다

고 볼 때, 한국이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세계 자본주의 공간에 포섭되는 조건을 분석하고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의 고유한 장소를 지키면서 보존하는가 하는 문제는 탈역사의 시기에 역사 찾기 작업과 동일한 것이며, 대중(mass)의 사회에 다시 인민(people)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상황에서 미디어와 세계문화의 역학관계가 다른 사회 분야와의 관련 속에서 역사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4) 탈근대적 주체상이 국제커뮤니케이션 수용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본주의기업이 위기관리를 위하여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시킨 결과는 초국가적 산업이 전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점차 이미지산업의 자본회전 속도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의 자아 정체성 변화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및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수용자 상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간의 모델에 대한 탈근대적 사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대시기의 인간상은 확실히 유럽인이다. 이제 그 신화가 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성중심, 서구중심, 기술 발달 및 자본의 운동논리의 관성을 일시에 멈추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학계의 세기말적 반성은 강자(서구사회)의 차이(difference)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근대의 관성에 포섭되어 나타나는 실질적인 인간(정신 분열적 인간)과 세기말적 반성에 의해 등장하는 인간상(예를 들어 니체의 초인상)의 괴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연구할까라는 문제가 남는다.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 복잡해진 미디어와 미디어 수용의 조건은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으로 변화하면서 분석의 수준도 달라진다.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맥락에서 미디어를 연구하기 위해 세계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미디어 생산, 텍스트, 수용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세계적 맥락을 고려하며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와 지역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수준과 지역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접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과 통제의 문제 및 미디어의 초국적 성격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산업과 전문 저널에서 나오는 자료에 주로 의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료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화 과정에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지역 수준의 국제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지역의 자료에 대한 접근 또한 미디어 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자들과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다양하게 재현되는 의미를 민감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문화연구에서 영향을 받은 민속지학적 방법과 현상에 대한 해석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자료 수집, 학자들간의 공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타 학문분과와의 연계, 그리고 매체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예를 들어 디즈니로 대표되는 세계 문화의 수용과 소비에 대한 연구는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asko et al. 1998) 이런 공동의 연구를 위해서는 세계화와 관련한 공동의 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위해 연구 주제에 따라 학자들 간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5. 맺음말

오늘날 국제사회의 변화를 세계화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이미 어떤 입장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미국 중심적이며, 시장 중심적이다. 그러나 세계화란 용어를 근대 이전부터 시작된 현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근대사회의 심화이기도하다. 이 논문은 세계화란 개념이 단순히 하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 의지와 탈구조주의적인 사고의 혼합물이다. 이런 입장은 언론학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화란 개념은 경제의 세계화인가? 정치의 세계화인가? 문화의 세계화인지 구분되어서 논의되어야한다고 본다. 경제의 세계화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세계시장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다. 언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는 네트워크 사회, 혹은 전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사회의 형성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뉴스 및 모든 미디어 내용물)의 상품적인 특성과 정신적인 특성이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를 분석하는 이론들의 허약함은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입장의 연구는 앞으로 언론학의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커뮤니케이션에서 비판 이론의 입장에 서서 포스트모더니즘 입장 중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해방운동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기본가정으로 수용하고자한 것이다. 문제들을 구성하는 기본가정으로부터 시작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까지 짚어보는 작업은 좀 더 체계적이면서, 경험적인 후속연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승현(1991), 「국제사회의 변화와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한국 언론학의 쟁점과 진로』, 나남.
- ___(1994), 「매스미디어와 세계문화」, 《현상과 인식》 봄, 제18권 1호, 현상과 인식.
- ___(1997), 「근대성과 전파이론」, 《커뮤니케이션 과학》 제14호, 고려대학교 부설 신문방송연구소.

- 김호기(1997), 「문화의 세계화: 이론과 현실」, 《신인문》 제1호, 한길사.
 ___(1997), 「모더니티와 한국사회」, 《현대사상》 제2호, 민음사.
 박길성(1996),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사회비평사.
 서정우(1997), 『국제커뮤니케이션론』, 나남.
 윤영철(1992), 「사회발전 논쟁과 문화제국주의론」, 《언론 사회 문화》 제1집,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기택 역(1996), 《국제관계이론》, 일신사.
 이수훈(1993), 《세계체제론》, 나남.
 임동욱(1989), 「문화제국주의론의 비판적 고찰」, 김왕석·임동욱 외, 《한국 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조항제(1997), 「제3세계 텔레비전 장르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연구: 텔레노벨라 논쟁의 재해석」, 《언론과 사회》 제15호.
 한국서양사학회 편(1996), 《근대 세계체제론의 역사적 이해》, 까치.
 황상재(1997), 「위성방송의 확산과 신정보질서」, 《국제커뮤니케이션과 한국사회》, 나남.
- Ahmad, Aijaz(1995), "Postcolonialism: What's in a name," in *Late Imperial Culture*. eds. by Roman De La Campa, E. Ann Kaplan and Michael Sprinker. Verso.
- Ang, I.(1985), *Watching Dallas*, London:Routledge.
 ___(1990), "Culture and Communication: Towards an Ethnographic Critique of Media Consumption in the Transnational Media System,"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5.
 ___(1996), "In the Realm of Uncertainty: The Global Village and Capitalist Postmodernity," in I. Ang(ed.), *Living Room Wars*, London: Routledge.
- Appadurai, A.(1990),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M. Featherstone(e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Biltreyest, D.(1991), "Resisting American Hegemon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ception of Domestic and US Fic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6.
- Beltrán, L. R., & Fox, E.(1979), "Latin America and United States: Flaws i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 K. Nodenstreng & H. I. Schiller(eds.),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or-

- wood, N.J.: Ablex.
- Blumler, J. G. & Gurevitch, M. & Katz, E.(1985), "Reaching out: A Future for Gratifications Research," in K. E. Rosengren, L. Wenner and P. Palmgreen(eds.), *Media Gradifications Research: Current Perspectives*, Beverly Hills: Sage.
- Boyd-Barrett, O.(1982), "Cultural Dependency and the Mass Media," in M. Gurevitch et al.(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 Boyd-Barrett, O.(1997),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zation: Contradictions and Directions," in Ali Mohammadi(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s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 Boyd-Barrett, O & Rantanen T.(1998), "The Globalization of News," in Oliver Boyd-Barrett and Terhi Rantanen(eds.), *The Globalization of News*, Sage Publications.
- Dorfman, A. & Mattelart, A.(1971), *How to Read Donald Duck?* I. G. Editions.
- Du Gay, P., Hall, S., Janes, L., Mackay, H. and Negus, K.(1997), *Doing Cultural Studies:The Story of the Sony Walkman*, London: Sage/The Open University.
- Featherstone, M.(1991), "Global culture: An introduction," in M. Featherstone(ed.), *Global Culture*, 1-14. London: Sage.
- Featherstone, M.(1991),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London: Sage.
- Featherstone, M.(1993), "Global and local cultures," in J. Bird, Curtis, B. T. Putnam, G. Robertson, & L.Tickner(eds.), *Mapping the Futures*, 169-187.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ejes, F.(1981), *Media Imperialism: An Assessment, Media, Culture & Society*, 3.
- Ferguson, M.(1992), "The Mythology about Globaliz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7. 69-93.
- Frieden, R.(1996),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Handbook*, Norwood: Artech House.
- Galtung, J. et al.(1965),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Journal of Peace Research*, 2. 64-91.
- Galtung, J.(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 Research*, 8:2. 91-118.
- Galtung, J. & Vincent, R.(1992), *Global Glasnost: Toward a New Information Order*, Cresskill, NJ: Hampton Press.
- Giddens, A.(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권기돈 역(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 Golding, P. & Harris, P.(1997), *Beyond Cultural Imperialism*. London: Sage.
- Grossberg, L.(1997), "Globalisation, Media and Agency."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연구 워크숍의 발제문.
- Hall, S.(1991), "The Local and the Global: Globalization and Ethnicities," in King, A.D.(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19-30. London: Macmillan.
- Hall, S.(1996), "When was 'the Post-colonial'? Thinking at the Limit," I. Chambers & L. Curti(eds.) *The Post-Colonial Ques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ll, S.(1996), "Who Needs 'Identity'?" in S. Hall & P.D. Guy(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1-17. London: Sage.
- Halloran, J.(1981), "The Context of Mass Communication Research." in E. G. McAnany, J. Schnitman, N. Janus, *Communication and Social Structure: Critical Studies in Mass Media Research*, New York: Praeger. 21-57.
- Halloran, J.(1997), "International Communication Research: Opportunities and Obstacl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s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 Hamelink, C. J.(1994), *Trends in World Communication*. Southbound.
- _____ (1997),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lobal market and Morality," in A. Mohammadi(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s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 Hannerz, U.(1991), "Scenarios for Peripheral Cultures." in A. D. King(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London: Macmillan.
- Hannerz, U.(1997), "Notes on the Global Ecumene," in A. Sreberny-Mohammadi, D. Winseck, J. Mckenna, & O. Boyd-Barrett(eds.), *Media in Global Context*, 11-18. London·New York·Sydney·Auckland: Arnold.

- Harris Phil.(1997), "Communication and Global Security: The Challenge for the Next Millennium," eds. by Peter Golding and Phil Harris, *Beyond Cultural Imperialism: Globalization, Communication & the New International Order*, Sage.
- Hester, A.(1976), "International News: Time and Type of Report," in H. D. Fischer & J. C. Merrill(eds.), *International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42-250, New York: Communication Arts Books.
- Hoskins, C. & Mirus, R.(1988), "Reasons for the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mes," *Media, Culture and Society*, 10(4) 499-515.
- Kayser, J.(1953), *One Week's News: Comparative Study of 17 Major Dailies for Seven-Day Period*, Paris: UNESCO.
- Lash, S. & Urry, J.(1994),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ondon: Sage.
- Laswell, H.(1926), *Propaganda Technique in the World Wa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Lee, C. C.(1979), *Media Imperialism Reconsidered*, Beverly Hills: Sage.
- Lerner, D.(1964),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Modernizing the Middle East*, New York: Free Press.
- Liebes, T. & Katz, E.(1986), "Patterns of Involvement in Television Fiction: A Comparative Analysis," i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 151-171.
- Liebes, T. & Katz, E.(1993), *The Export of Meaning: Cross-cultural readings of Dallas*, Cambridge: Polity Press.
- Lippman, W.(1922),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ull, J.(1995), *Media, Communication, Culture: A global approach*, Columbia University.
- Mattelart, A., Delcourt, X. & Mattelart, M.(1984), *International Image Markets*, London: Comedia.
- Martin-Barbero, J.(1993), *Communication, Culture and Hegemony*, London: Sage.
- McGuigan, J.(1992), *Cultural Populism*, London: Routledge.
- Mohammadi, A.(1997),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s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 Morley, D.(1996), "EurAm, Modernity, Reason and Alterity or,

- Postmodernism, the Highest Stage of Cultural Imperialism?," D. Morley & K. S. Chen(eds.), *Stuart Hall*, London: Routledge.
- Morley, D. and Robins, K.(1989), "Spaces of Identity: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the Reconfiguration of Europe," *Screen*, 30(4), 10-34.
- Mosco, V.(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Rethinking and Renewal*, Sage publications.
- Mowlana, H.(1997), *Global Information and World Communication*, London: sage.
- Nordenstreng, K.(1993), "Sovereignty and Beyond," in K. Nordenstreng & H.I. Schiller(eds.), Norwood, N. J.: Ablex.
- Nordenstreng, K.(1995), "The NWICO Dbate," unit 20, *MA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Centre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Leicester: University of Leicester.
- Roach, C.(1997), "Cultural Imperialism and Resistance in Media Theory and Literary Theory," *Media, Culture and Society*, 19.
- Roach, C.(1997), "The Western World and the NWICO: United They Stand?," in P. Golding & P. Harris(eds.) *Beyond Cultural Imperialism*. London: Sage.
- Robertson, R.(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Newbury Park, New Delhi: Sage.
- Rogers, E. M.(1962), *Diffusion of Innovation*, N.Y.: Free Press.
- Samarajiwa, R.(1984), "Third World Entry to the World Market in News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Media, Culture and Society* 6.
- Schiller, H. I.(1976), *Communication and Cultural Domination*, New York, M.E. Sharpe.
- Schiller, H. I.(1989), *Culture, Inc.:The Corporate Takeover of Public Expr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양기석 역(1995), 『문화(株): 공공의사표현의 사유화』, 나남.
- Schiller, H. I.(1996), *Information Inequality*. New York & London: Routledge.
- Schramm, W.(1964), *Mass Media and National Development*,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hraniyan, M. & Tehraniyan, K.K.(1997), "Taming Modernity: Towards a

- New Paradigm,” in A. Mohammadi(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Globalisation*, London: Sage.
- Thompson, J. B.(1995), *The Media an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Tomlinson, J.(1991), *Cultural Imperialis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강대인 역(1994), 『문화제국주의』, 나남.
- Tomlinson, J.(1997), “Globalisation, Culture and Cultural Imperialism,” in A. Mohammadi(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s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 Vattimo, G(1988), *The End of Modernity: Nihilism and Hermeneutics in Post-modern Cultu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Vattimo, G.(1992), *The Transparent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김승현 역(1997), 『미디어사회와 투명성』, 한울.
- Vincent, Richard C.(1997), “The Future of the Debate: Setting an Agenda for a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Ten Proposals,” eds. by peter Golding and Phil harris, *Beyond Cultural Imperialism: Globalization, Communication & the New International Order*, Sage.
- Wallerstein, I.(1991), *Geopolitics and Geoculture*, Cambridge Univ. Press.
- Waters, M.(1996), *Glob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